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일 화요일 음 7월 11일 (3월)

기상정보

흐리고 한때 비



제주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27°C, 낮 최고기온은 30-32°C로 예상된다.

Table with precipitation percentage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자외선지수 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중국, 전승절 '공산당 승리' 강조

10년 전 '국공합작' 부각 대조

10년 전 '항일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국공(國共·국민당과 공산당)합작'을 부각했던 중국이 전승절인 오는 3일 개최할 열병식을 앞두고는 '공산당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



열병식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텐안먼.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싸우며 전후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적었다. 또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1971년 중국이 유엔에서 유일하게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한 유엔 총회 결의 2758호 등을 언급하며 이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주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만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당시에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대만 주권을 지우려는 악의적 역사 왜곡"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데스크 칼럼



고대로 편집국장

오영훈 제주도정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권고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2022년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토론회, 공청회, 원탁회의 등 1년여의 공론화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 공론화 짓밟는 정치권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두 달 뒤 김한규 국회의원(민주당·제주시)이 돌연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며 혼란은 다시 시작됐다.

김 의원이 초기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고 도민들과 공개적으로 토론했더라면 건전한 논쟁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3개 행정구역 설치안이 발의된 뒤 다른 법안을 내놓은 것은 공론화 결과를 무력화하고 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독단적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도 혼선을 키웠다. 그는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3개 행정구역으로 할지, 2개 행정구역으로 할지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도민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 결론을 뒤엎는 발언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듯 보였지만, 정작 도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는 행정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태도도 문제다. 올해 상반기 제주시를 두 개로 분할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할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으나 질문 문항과 표본 추출 방식 공개 요구에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도의회가 주도한 여론조사 역시 선택지를 '3개 행정구역 설치안'과 '2개 행정구역 설치안'으로만 한정하고, 현행 체제(특별자치도·2개 행정시) 유지나 다른 대안은 배제했다.

의사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도민이 만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다.

따라서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이 의장의 무책임한 여론조사 시행은 의장이라는 자리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권력의 오만이자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태로서, 결국 역사 앞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당내 의견조사 수렴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과 오영훈 도정의 리더십 부재는 문제의 심각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열린마당

지역주택조합 가입,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문승한 제주시 주택과

제주로 이주를 계획하는 사람들이나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진 지역주택조합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이 주택이 설립되면 설계자를 선정해 건축 설계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공자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며 사용검사(준공) 이후 조합 해산까지 완료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진화하는 보이스포싱, 셀프감금까지...



성설희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모집신고 수리 및 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처리 요령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으며, 제주시 역시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분담금이 추가되거나 사업기간 또는 시공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심한 경우 사업이 무산돼 조합원이 납부한 계약금이나 분담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을 고민하고 있다면 조합 가입 시 조합규약과 계약서 내 불리한 조항, 토지 소유권의 50% 이상 확보, 모집광고와 실제 승인 내용 일치, 업무대행사와 조합장의 권한 분리, 향후 분양가 및 공사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길 당부드린다.

"안전한 조사를 위해 외부와 연락을 끊고 지정된 장소에 머물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인다.

피해자는 불안과 두려움에 스스로 감금돼 속도에 머물며 가족과 연락을 차단하게 된다. 그 사이 범죄자들은 가족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숙소에서 머물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 또는 해당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이 갑자기 끊겼을 경우에도 보이스포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히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라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Advertisement for '감귤 신제품 분양' (Citrus New Product Distribution) for 2025, listing various product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감귤묘목, 포트묘목 분양' (Citrus Seedling Distribution), listing products like Red Star, Golden Star, etc.

Advertisement for '의료 안내' (Medical Guidance) for Donggu Dental Clinic, including location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Jeju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y Hanra), listing services like fiber optic, CCTV, etc.